생활 공간의 정서적 장역학

Emotionally Charged Field Dynamics of Lived Space

김 영 철*
Kim, Young Chul

Abstract

Lived space, i.e. space as we experience it in our mundane life,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of material objects: it is defined, delimited and made sensible by them. Concrete spaces so manifest are not sterile and neutral homogeneous voids. Not only do they interact with material objects but also influence our feelings and behaviour, constituting emotionally charged fields. This field dynamics of space is readily observed in the phenomenon of place as well as in the etymology and usage of the word 'place'.

Each space is pervaded by a particular mood or atmosphere in accordance with its size and shape as well as with the perceptual properties of its constituent objects. Moreover, within each space the atmosphere also changes depending on the location. Space then can be thought of as a nonhomogeneous field of emotional energy. The fact that one is attracted to some places and repulsed by others may be described as one's being subject to invisible forces of pulls and pushes, attractions and repulsions. Our spatial environment is therefore a field of forces of varying directions and magnitudes.

Ⅰ. 서 론

우리의 물리적 생활공간, 즉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우리 체험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공간은 물체로 인하여 한정되고 규정되어 있다. 주변의 구체적인 상황의 유한하고 비균일한 특수성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무한하고 균일한 공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며 우리 일상 생활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것이다.

사람이 생을 얻어 처음으로 체험하는 공간은 모태이며 출생 후 유아기에 체험하는 주된 공간은 어머니의 품이다.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생활 공간은 집, 이웃동네,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한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며 다른 공간들과 구별되는 의미, 가치, 분위기 등을 지니고 있다.

시간이 우리에게는 막연하고 균일한 흐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 등과 관련되는 '때'로서 인식되듯이 공간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안방, 골목길, 커피숍, 운동장, 골짜기 등 구체적인 '곳' 혹은 '장소'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아인슈타인도 지적하듯이 '장소'는 '공간'보다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쉽게 다가오는 개념이다.[2] 그는 또한 장소를 "이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지구 표면의 한 작은 부분"이며 "물체들이 이루는 일종의 질서"라고 정의하고 있다(Collins, 1965, p.289).

본 연구자(김영철, 1977, 1995)는 우리 인간의 체험에 비추어 볼 때 바닥, 기둥, 벽, 지붕과 같은 건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단순한 물체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각기 그 형태와 배열 또는 배치에 따라 그 주변에, 위에, 곁에, 밑에, 사

* 정회원, 계명대 건설시스템 공학부 교수, Ph.D.

이에 혹은 안에 농축되어 있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충전된 영역, 즉 장(field)을 형성함을 논고한 바 있다. 본 연구자(Kim, 1979)는 또한 물체가 형성하는 이 정서적 장이 개인적으로 달리 반응할 수 있는 힘의 장(field of forces)을 일으킴을 논증하고 그 메커니즘의 기본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생활공간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가르키는 '장소'(영어: place, 그리스어: topos), '집'(영어: home) 그리고 'Raum'(독일어로 방 및 공간을 뜻하는 말)등의 정의, 어원 및 용법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현상들을 통해서 건축, 도시, 자연 등을 모두 포함한 물리적 생활공간이 복합적인 힘의 장을 이루고 있음을 규명함과 동시에 주거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에 있다.

Ⅱ. 정서적으로 충전된 공간

1. 공간의 양과 질

실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공간은 측정 가능한 연장(extension)의 양, 즉 물건들 사이의 거리 혹은 지정된 경계물들 사이의 면적이나 용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공간이 순전히 양적이라면 완전히 균일하여야 한다. 즉 각 부분의 크기를 제외한다면 어떤 특징으로도 공간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Guénon, 1972, p.42). 그러나 이런 균일성 개념은 우리 체험과 부합되지 않는다. 협소공포증과 광장 공포증은 극단적인 예일 뿐이다. 천장이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 그리고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운동의 자유도를 허용할 뿐 아니라 그 공간들 자체가 각기 압축 또는 팽창, 농축 또는 희박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며 동시에 각기 남다른 정서적 울림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천장이 낮은 작은 방에서는 모든 것들이 서로 가까이 있게 되는데 이런 방은 긍정적으로는 아담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부정적으로는 답답하여 구속감을 줄 수 있다. 한편 천장이 높은 넓은 방은 냉담하고 자립적인 분위기로 특징지어지기 쉬우므로, 형식적인 딱딱함, 권력, 부유함 등을 연상시킬 수 있다.

공간의 질, 즉 공간의 정서적 울림이나 진동은 작은 방과 큰방 사이에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방형의 방과 타원형의 방, 침실과 거실, 다락방과 지하실 사이에도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면 방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구체적인 공간의 분위기는 공간의 크기, 비례, 위치를 비롯하여 경계물들의 단단함, 색상, 재질과 같은 재료적인 속성들, 그 외에 조명과 개구부, 가구와 장식, 그리고 용도까지도 포함한 많은 인자들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함수이다.

2. 공간과 장소

우리 생활 속에서 공간은 구체적인 장소로 현현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으므로 감정이나 정서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체험의 장(field)이다. 따라서 장소는 정서적으로 충전된 장(emotionally charged field), 즉 인간과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상호작용(emotional interaction)의 장이기도 한다. Norberg-Schulz (1980)의 말을 빌린다면 장소는 "물질, 모양, 질감, 색상 등을 지닌 구체적인 물건들로 구성된 [국소적인] 통합체"(pp.6-8)를 지칭한다. 여기서 우리는 '통합체'란 말을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물체들은 단순히 물리적 존재로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구성하는 환경에 어떤 정서적 특징, 즉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를 함께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공간 속에 퍼져 있는 이 정서적 특성이야말로 장소의 질적 본질이라고 하겠다.

장소의 이와 같은 질적 본질이나 전체성은 측정 가능한 양(量)이나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묘사 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느껴질 뿐이다. 우리 공간 환경의 이러한 질적 혹은 정서적 본질은 Giedion(1922)에 의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는 방을 에워싸는 물체들이 그 공간에 '분위기'라고 불리는 측정할 수 없는 실재를 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물체들로부터 공간으로 비약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체험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p.85). 방이든, 건물이든, 도로이든, 혹은 공원이든지 간에 우리 공간환경은 어떤 분위기를 지니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그것은 즐거운 분위기 혹은 우울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혹은 느즈러진 분위기, 편한 분위기 혹은 긴장된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 혹은 적대적인 분위기로 우리와 관계를 갖으며 그 분위기에 따라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혹자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그 공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관찰자 마음 속에 일으키는 느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 묘사들은 우리가 공간 환경과의 미묘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리게 되는 질적 평가이다. 이 현상은 공간의 분위기 및 사람의 기분과 관련되는 2중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간마다 사람이 내리는 평가에 선행하고 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본래의 분위기가 있다. 마음 상태에 따라 주어진 장소로부터 받는 인상이 달라지게 마련임으로 다양한 평가를 낳게 한다. 희미하게 조명된 공간이 어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정효과가 있을 수 있다. 큰 개구부들을 통해 외부공간이나 옆방들과 연결된 개방적인 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기분이나 성향과 무관하게, 목재를 노출시켜 지은 건물은 콘크리트나 철골로 지은 건물과 구별되는 부드럽고 유기적인 분위기를 지닌다.

공간 환경의 이런 미묘한 질적 차이를 사람이 인지하는지의 여부는 감수성의 문제일 것이다. 공간에 대한 우리 반응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당연히 우리 마음의 상태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Ⅲ. 정서적으로 충전된 공간의 장역학

1. Room과 Raum의 場性

조경이나 도시 설계 혹은 조각에서 다루는 공간과 비교한다면 건축공간의 독특함은 사람의 생활을 수용하는 방(room)의 공간성에서 찾아진다. 방은 장소임으로써 공간의 정서적으로 충전된 場力學(field dynamics)을 잘 보여준다. 고온다습한 열대지방의 경량 가구식(架構式) 구조로 된 개방적인 주택보다 물리적 요소들이 훨씬 튼튼한 전통적인 서양 주택의 경우에서도 방의 본질은 물리적 경계물 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물에 의해 내포된 공간에 있다.[3] Heidegger(1971)의 말을 빌린다면 "경계는 무엇이 멈추는 곳이 아니다. 그리스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듯이, 경계는 무엇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곳이다"(p. 154; 원래 강조 표시). 방은 무(無)가 아니라 퍼짐이라는 감각적 현실을 지니고 있다. 즉 방의 본질은 경계물에까지 이르는 어떤 퍼짐 혹은 장(field) 에 있으며 이것이 그 방의 분위기로서 현현되어 있다.

장(field)으로서의 방과 관련해서 독일어의 Raum이란 단어를 의미론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Raum은 '방(room)'을 뜻하는 동시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공간(space)'도 뜻하는데 구체적인 공간 자체의 퍼짐, 즉 장성(場性: field qualities)을 시사한다. Van de Ven(1980)은 서술하기를 "'방'을 뜻할 때 쓰이는 Raum이라는 단어는 의미론적으로 퍼짐(expansion)을 뜻하거나 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이용도를 뜻한다"(p. xii). 이 단어는 개간 혹은 이주 목적으로 삼림 내에 간벌지를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 räumen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나중에 그 간벌지 자체를 뜻하게 되었다(Bollnow, 1963, p.33). 이렇게 Raum은 원래부터 에워싸인 유한

한 생활공간을 가르킨 것이다.[4] Van de Ven (1980)에 의하면 "'Raum'을 사용함으로써 독일어는 실내의 내포된 공간을 보다 추상적이고 지적인 개념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Raum 이란 단어에는 "현실에 대한 감각적 인지와 지적인 개념이 융합"된다(pp. xiii-xiv). Collins(1965)도 Raum이란 단어의 2중적 의미 함축에 주목하면서 주장하기를 "독일인이 방을 무한한 공간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대단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p.286).

2. 공간의 점차적 변화

어떤 방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 자체 또한 균일한 장이 아니다. 실내 공간을 넓고 개방적인 야외 공간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양적 및 질적 차이들과는 별도로, 방안에서도 공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즉 방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그리고 모서리로 감에 따라 안정감이 증가함으로써 공간의 질이 점차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활기찬 사람이 비교적으로 방 중앙부로 더 이끌리기 쉬운가 하면 기운이 침체된 사람은 가장자리나 모서리로, 즉 보다 보호되고 정적(靜的)인 부분으로 이끌리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방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질적 변화는 우리가 구체적인 물체들로 구성된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체험하는 공간의 장역학(場力學)을 요약한다. 즉 때와 상황 혹은 행위 외에 기분에 따라 같은 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끌리는 곳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3. 장소에 대한 힘의 장 개념

장소는 일종의 영향 영역(realm of influence)이다. 다시 말하면 장소는 정서적 힘, 즉 환경적 느낌이나 분위기로 충전된 장(field)을 이루면서 우리 정신에 작용한다. 이 정서적 힘은 어떤 장소에게는 이끌리고 어떤 장소는 피하고자 하는 우리 행동의 기초에 깔려 있다. 우리는 당기기와 밀기, 즉 당기는 힘과 배척하는 힘들을 체험한다. 우리는 내면적인 공명을 느끼며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한(feel at home) 장소에는 이끌리는 한편 분위기가 맞지 않아 편하지 않은, 즉 제자리를 얻지 못해 무언가 어색한(out of place) 느낌이 드는 장소는 멀리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환경의 구체적인 공간은 우리의 삶과 활동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으며 장소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힘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한다.

어떤 이가 식당이나 호텔의 로비 혹은 대합실에 들어가 앉는 자리를 고른다고 상상해 보자. 사교적(社交的)인 역학(力學)의 문제 그리고 분비 혹은 고독에 대한 선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없음을 가정한다. 기둥이나 벽이나 모서리 부근 혹은 천장이 낮은 곳 등 보다 보호된 장소로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벽과 기둥들로부터 떨어진 보다 노출되고 유동적인 공간, 혹은 창문이나 출입구와 같은 개구부 부근의 공간, 혹은 여유로운 누다락과 천장이 높은 곳으로 이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의 성격, 그 당시의 기분, 목적, 행위 등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공간 선택을 좌우함으로 주어진 공간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환경적 분위기가 역동적인 힘의 장으로서 작용함은 분명하다.

공간의 이와 같은 장역학이 외부공간에서도 작용한다. 어떤이가 처음 방문한 외국 도시에서 어떤 공원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그가 공원의 어디로 가서 휴식을 취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그는 얼마동안 여기저기 거닐고 유심이 관찰하면서 곧 이끌리는 장소와 이끌리지 않은 혹은 피하고 싶은 장소들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빛, 소리, 기온, 바람과 같은 물리적 및 기후적

인 인자들의 불균일한 분포를 무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물체들의 질서에 의한 공간 역학적 이유만으로 사람은 연못, 분수, 작은 언덕 등으로 혹은 숲, 큰 우산처럼 가지들이 넓게 뻗은 나무, 덩굴로 덮인 정자, 혹은 넓고 개방적인 들 등 다양한 장소 중 특히 이끌리는 곳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사람은 역시 자기에게 맞는 장소 즉 기분이 좋고 쾌적한 장소를 택할 것이다. 사람의 성격, 기분, 혹은 행위나 상황에 따라 근접함과 에어쌈으로 특징지어진 보호된 장소로 이끌릴 수도 있고, 노출되어 있는 동시에 넓은 전망을 지닌 개방적인 혹은 높은 지대에 있는 장소로 더 이끌릴 수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공간 선택이 결코 자기 기분과의 어울림만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바꾸고 싶은 욕망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울한 사람이라고 해서 음침함 분위기로 울리는 폐쇄적인 장소에 가면 더욱 우울해 질 수도 있으나 보호되어 있으면서도 생기가 도는 장소에 가서 자신의 기분이 밝아짐을 기대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생명지향적'이다. 동등한 접근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가 나고, 건강해지고 자신과의 일치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들을 추구한다(Alexander, 1979, Chap. 15 참고). 이런 장소들은 우리에게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한 느낌을 준다. 이런 장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지향적인 성향, 즉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와 공명을 일으킨다.

1) 접근-회피 행태

환경과의 원초적인 상호작용 양태에 있어 사람은 느낌에 의해 인도된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옳다, 훌륭하다 혹은 쾌적하다는 등의 느낌을 자신의 행동에 이용하거나 짜 넣는다. 본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상호작용은 정서적이다(Ogden, 1938, p.5). Mehrabian과 Russell (1974)은 정서가 매개하는 접근-회피(approach-avoidance) 행태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합적인 묘사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환경이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일 수도 있으며 '자극(stimuli)'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대인거리(Hall, 1966) 및 사람이 물체와의 관계에서 취하는 거리(Kim, 1979)의 "접근학적(proxemic)" 역학은 이러한 행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접근-회피 행태는 "어떤 환경 혹은 자극에 대한 신체적 접근이나 회피, 주위를 기울이는 정도, 탐구 행위, 말로 혹은 비언어적으로 취향을 표현하는 행동, 임무에 대한 수행 태도나 수준, 그리고 남을 대하는 자세"(Mehrabian and Russell, 1974, p.96) 와 같은 다양한 행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Mehrabian과 Russell에 따르면 환경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자극으로서 감각 기관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그 사람 내면에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환경은 우리 마음속에서 접근-회피 2분법에 의해 야기 되는 정서적으로 충전된 힘의 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2) 친밀도의 변화

정서적으로 충전된 공간의 장역학(field dynamics)과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공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친밀도의 변화(intimacy gradient)"에 주목하게 된다. 즉 어떤 주택이나 건물에서도 가장 공적인 공간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혹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현관에서 안방으로 이행함에 따라 친밀도의 변화가 일어난다(Alexander 외, 1977, pp.610-613). 그런 까닭에 상황, 때 혹은

행위마다 그 친밀도나 공공성의 정도에 부합되는 방, 장소, 위치 등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이 어느 주택이나 건물의 입주자들과 친하면 친할수록 더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공간의 질적 변화 원칙은 실내이건 실외이건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소위 '성역' 취급을 받는 공간들, 예를 들어 힌두교의 사원(그림 1), 고대이집트 신전(그림 2), 베이징의 자금성, 합천 해인사, 일본의 이세 신궁 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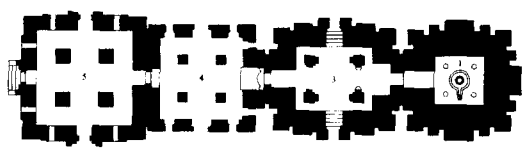

그림 1. 인도 부바네스와르의 힌두교 사원 평면도 (Norwich, 1984,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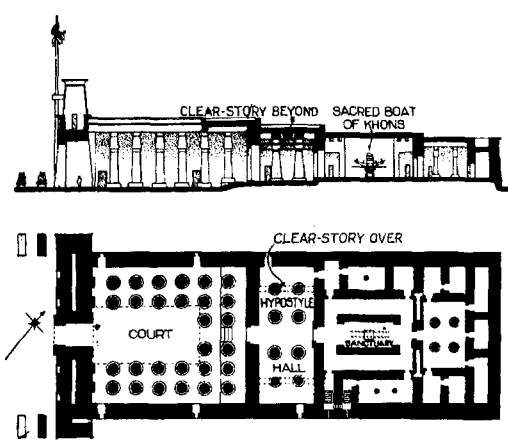

그림 2. 이집트 카르낙의 콘스 신전 평면도와 단면도 (Fletcher, 1961, p. 38)

보다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례들은 여러 겹으로 되거나 앞뒤로 이어지고 문이나 출입구를 통해서 연결되는 구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으로 갈수록 더 사적이고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구역이 되며 결국 다른 구역들을 모두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가장 뒤나 안쪽에 있는 구역에 다다르게 된다. 이집트 신전의 경우 연결된 구역들을 통과함에 따라 공간 면적과 천장 높이가 감소하고 바닥이 높아지면서 신성함이 점차 강화되는데 신상이 안치된 가장 안쪽의 지성소에서 정점에 이른다(그림 2). 이런 성역들에서는 안쪽 영역으로 갈수로 응집되고, 고요해지고 거룩해 진다는 공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인지는 흔히 사회 종교적인 전통 및 상징성과 결합된다. 즉 사람마다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의 공식 서열이나 종교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왕이나 대제사장 만이 가장 안쪽 구역까지 들어 갈 수 있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 개념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공간의 장역학과 유사한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서 발견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한하고 동심원 상태로 구성된 우주 공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 흥미롭게도 원래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topos)'이다. 그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 상태로 여러 층으로 된 우주공간을 가정하였는데 이 공간 층들 하나하나가 토포스인 것이다. 불, 공기, 물, 흙의 소위 4원소는 각각 독특한 고유의 장소(토포스)를 갖고 있어 항상 그 장소로 이동하려는 혹은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하였다. 다시 말하면 불꽃이나 가벼운 물체들은 위쪽에 있는 자기 장소를 향해 상승하고 무거운 물질이나, 물체들은 아래쪽에 있는 자기 장소를 향해 하강한다. 따라서 20세기 초엽에 전자기와의 관계에서 제시되었으며 현대 물리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한 힘의 장개념과 유사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 공간 속에 상정하였던 것이다(Bollnow, 1963, pp. 26-27).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서는 4원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공간의 장역학이 다루어져 있지만 그 원칙은 사람마다 어떤 장소들에는 이끌리고 어떤 장소들은 멀리하는 우리 생활공간에도 적용 될 수 있다. 많은 장소들 가운데 우리 생활 공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 당기는 힘을 행사하는 장소는 자기 집이다[6].

4) 'Place'의 용법과 어원

우리 생활공간과 관련된 영어 'place'의 용법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 개념과 비견되는 장역학적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주어진 환경과 정서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 그는 'in place'의 상태에 있으며 제자리(his 혹은 her place)를 얻은 상태에 있다. 한편 환경과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제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 즉 'out of place' 혹은 'misplaced'의 상태에 있다. 후자는 정서적 어울림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달리 묘사한다면 어떤 곳은 그를 밀어내려는 힘을 행사하고 또 어떤 곳은 그를 당겨 들이려는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많은 장소들로 구성된 우리 각자의 생활공간은 방향과 크기가 서로 다른 다양하게 얽힌 힘의 장을 이루고 있다.

장소는 장(場)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자는 원래 장애물들이 제거된 트인 땅을 말하며,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 (Kobayashi, 1963, "場") 즉 신성한 힘으로 충전된 것으로 여겨진 영역을 가리켰다. 현재 이 장이란 말이 '힘의 장', '인력장', '전자장'과 같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장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동시에 그 외의 비가시적인 장역학적 현상을 묘사하는 데에도 매우 적절한 말이라 하겠다.[7]

영어에서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space(공간)'와는 달리 'place(장소)'라는 말이 우리 생활공간의 장적(場的)인(field-like) 성질을 잘 암시한다. 우선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지면(地面)의 수평방향으로의 뻗음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field'라는 단어와 친척 관계에 있다. 중세 영어에서 place는 공간이나 위치를 뜻하였으며 라틴어의 platea(넓은 도로 broad street, 공간 space) 그리고 그리스어의 plateia(platus의 여성형: 편평한 flat, 넓은 broad)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자는 또한 인도 유럽어의 어근 plat-(편평한 flat)로 거슬러 올라간다. plat-는 pelə-(flat, 뻗다 to spread)의 연장 어근으로서 peltus, 독일어의 felthuz(평지 flat land), 고대 영어의 feld 그리고 드디어 field를 낳게 하였다(AHD, 1976, "place"; Partridge, 1958, "field").

5) Mental Map

우리가 논고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충전된 장은 물리적인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체험 내용을 묘사하는 데에는 유익하다. 이 장은 현상학적으로, 즉 우리 체험 내용에 비춰 보았을 때 환경 속에 있다고 상정할 수 있는 정서적 에너지[8]의 비균일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는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압박과 긴장 등 위치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힘들의 영향을 받는다. 정서적 에너지의 비균일한 분포는 지리학자 Gould와 White(1974)가 "mental map"이라고 부르는 심상지도(心像地圖)의 일종이 표현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멘털맵에서는 환경이 도시 및 국가적 규모에서 다루어져 있으며 공간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특성들도 포함된다. 공간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이나 관심사와 다르기는 하지만 멘털맵도 환경을 정서적 에너지의 비균일한 장으로 간주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영국내 거주에 대하여 갓 학교를 졸업한 인버네스(Inverness) 지방의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취향을 조사하여 만든 멘털맵이다. 수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들이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거주지임을 나타낸다. 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거주지는 이들의 고향 인버네스 지방이며 그 다음은 흥미롭게도 인버네스에서 가장 먼 영국 남단, 이어서 이스트 앙글리아, 에어셔, 미들로디언 지방 순으로 나타나 있다. 영국 다른 지방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지방과 함께 영국 남단의 데본 지방 및 영국 해협 연안을 거주지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uld and White, 1974, p. 69-92).

그림 3. 영국 인버네스 지방 젊은이들의 국내 거주 선호도 분포 (Gould and White, 1974, p.80)

그림 4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지구를 대상으로 David Ley가 조사해 만든 멘털맵이다. 위의 거주 선호도 조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면 이 조사는 부정적인 현상을 부각시킨 것이다. 여기서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일수록 지역주민이 인지하기에 스트레스가 많아짐을 나타낸다. "이 동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 지형이 있는데 봉우리는 피해야 하는 곳들이고 낮은 지역과 계곡은 보다 안전한 지역들이다. 봉우리들은 대체로 갱들의 세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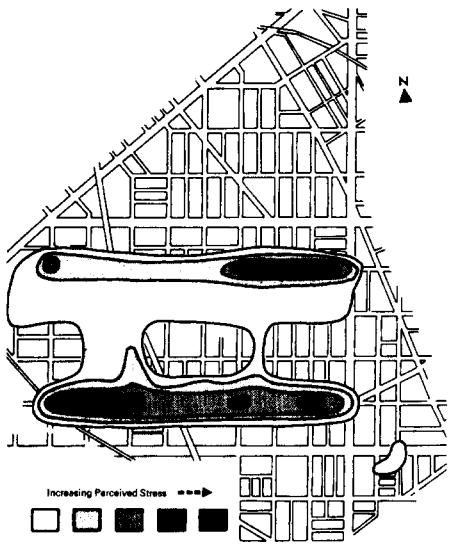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필라델피아 시내 한 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도 (Gould and White, 1974, p. 31)

중심부, 즉 건물들은 폐허가 되고 마약이 매매되는 곳들의 부근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와 일치한다. 이 지역에 사는 어른이나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심리적 지형을 알고 있어야 신체적으로도 위험한 환경 속에서 글자 뜻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Gould and White, 1974, p. 30).

6) 공간의 정서적 충전과 인간 행태 메커니즘

영국내 거주 선호도 맵에서는 수치가 높은 곳, 즉 산이나 고지를 향한 힘들이 작용하는데, 필라델피아의 스트레스 인지도 맵의 경우는 반대로 산으로 나타나 있는 곳들을 멀리케 하는 힘들이 작용한다. 주거 내의 친밀도 변화나 힌두교 사원(그림 1) 혹은 이집트 신전(그림 2)내의 신성도 변화를 멘털맵식의 등고선으로 표시한다면 입구의 수치가 가장 낮고 안으로 갈수록 수치가 증가하여 맨 안쪽의 수치가 가장 높음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들은 선호도나 혐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수치가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적정치가 있으며 그 적정치 또한 때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그 적정치와 부합되는 지점 혹은 장소로 이끄는 힘들이 작용한다.

이와 같은 공간의 정서적 충전과 인간의 공간행태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 메커니즘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Kim, 1979 참조). 그림 5는 어떤 건물의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감에 따라 정서적으로 충전된 장의 강도가 높아짐을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이 장의 강도는 건물의 종류 혹은 때와 상황에 따라 친밀도나 신성도 혹은 권위도 등이 될 수 있다. 지점 A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쾌적하게 느껴지거나 주어진 때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임을 나타낸다.

그림 6은 그 사람이 느끼는 쾌적도 혹은 적정도의 변화를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서 A지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 값이 그 보다 낮은 안쪽이나 입구 쪽에서는 A지점을 향한

힘이 그 사람에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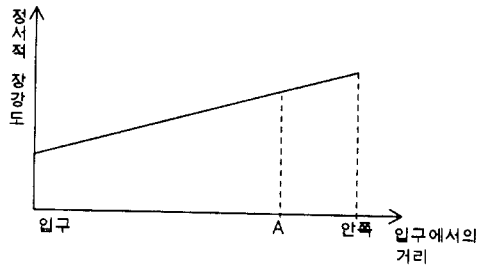

그림 5. 입구에서의 거리에 따른 정서적 장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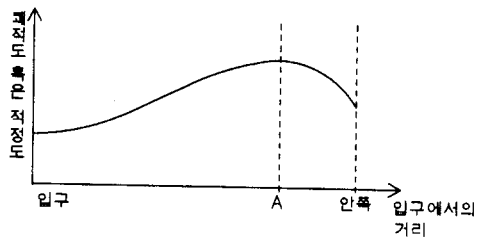

그림 6. 입구에서의 거리에 따른 쾌적도 혹은 적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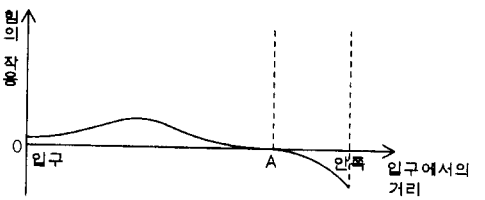

그림 7. 입구에서의 거리에 따른 힘의 작용 변화

그림 7은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A지점은 가장 쾌적하거나 적절한 곳이기 때문에 힘의 작용이 없다. A지점에서 멀어질수록 A지점을 향한 힘의 작용이 강해진다. 다시 말하면 입구 쪽에서는 힘이 플러스 방향, 즉 입구에서의 거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안쪽에서는 힘이 마이너스 방향, 즉 입구에서의 거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보통 우리 의식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매우 미묘한 것일지라도 이렇듯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물체의 존재와 질서에 따른 공간의 비균일성 및 장역학의 영향은 확연히 있으며 우리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Ⅳ. 결 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물리적 공간은 물체들에 의해 규정되고 인지할 수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물체들의 질서와 양상에 의해 정서적으로도 특징지어진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 공간은 불가피하게 정서적으로 충전된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공간은 물체들을 격리시킬 뿐인 중립적인 빔들(voids)도 아니고 물체들의 존재 및 역학 관계와 무관한 무미 건조하고 균일한 연장도 아니다. 우리의 생활공간은 위치와 장소에 따라 그 분위기가 달라지므로 정서적 에너지의 비균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정서적으로 충전된 생활공간의 이러한 비균일성은 우리 정신, 즉 우리 기분에 작용하며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때 그의 기분, 목적, 행위 등에 따라 공간의 이러한 비균일성은 특정한 양상의 힘의 장을 일으킨다. 이 힘의 장은 그로 하여금 어떤 위치나 장소로 이끌리게 하고 또 어떤 장소는 피하게 하는데 그러한 작용의 결과가 반듯이 가시적으로 들어 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항상 우리 느낌을 반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면의 느낌을 감지하거나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에 거스르게 하기까지 하여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선입관과 상황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느낌은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쉬 간과한다. 우리의 생명 지향적 추세를 꽃피우게 하는 일과

관련시켜 볼 때 느낌은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 환경을 평가하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한다(Alexander, 1979, pp. 610-613; Heidegger, 1971). 우리의 생명 지향적 추세와 어긋나거나 그런 추세를 방해하는 장소는 우리 기분을 나쁘게,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 즉 misplaced나 out of place의 상태가 주는 느낌, 다시 말해서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색하다는 느낌을 주며 사람을 방황케 한다. 한편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소는 우리 기분을 좋게, 생생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한다. 즉 우리 존재의 온전함을 느끼거나 우리 자신과의 화합을 더 느끼게 한다. 이런 장소야말로 at home적인 느낌 즉,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사람이 바로 이러한 느낌을 우선적으로 찾는 곳이 다름 아닌 자기 집이고 자기 방이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바깥세상에서 아무리 외롭고 피곤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일단 돌아가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place), 즉 보금자리(home)를 제공하는 것이 주거(house)의 최상의 목적일 것이다.

주

1) 본 논문의 영문 제목에서 생활공간을 굳이 자동사 live의 수동태를 사용하여 'lived space'로 표시한 것은 사람의 삶이 전개되고 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이 개념은 Lewin(1936)이 심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생활공간(독어 Lebensraum, 영어 life space)개념과 구별된다. "생활되어져 있는 공간(der gelebte Raum)", "생활공간(Lebensraum)", "체험되어져 있는 공간(der erlebte Raum)" 등의 개념 비교는 Bollnow(1963, pp. 18-22) 참조.
2) Smithson, 1968, p. 101에 인용된 네덜란드의 건축가 Aldo van Eyck의 시 참조.
3) 노자, *도덕경*, 11편 참조.
4) 김정섭(1997)은 '공간'에 대응하는 우리말 단어로서 '얼안', '틈', '자리', '빈자리', '빈칸', '빈곳', '사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 중 '얼안'이 Raum의 원래 뜻에 가장 근접하다.
5) Kim(1979)은 사람과 물체 간에 이루어지는 거리의 역학 관계를 물체가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행사한다고 보고 그 원칙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6) 자기 집을 확대 해석하면 자기 고향, 자기 모국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된다.
7) '장(場)'과 '장소(場所)'는 현재 한국어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실은 각각 'ば(ba 場)'와 'ばしょ(basho 場所)'라는 일본말에서 유래된 것이다(김민수, 1997).
8) 이 정서적 에너지는 구체적인 공간에 분포되어 있다고 상정된 것으로서 Lewin (1936)이 말하는 "심리적 에너지"와는 다르다.

참 고 문 헌

1. AHD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1976).
2. Alexander, C. (1979).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New York: Oxford Univerisyt Press.
3. Alexander, C., Ishikawa, S., Silverstein, M. and Jacobson, M. (1977). *A pattern language: Towns, buildings, 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 Bollnow, O. F. (1963). *Mensch und Raum*. 7th ed.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5. Collins, Peter (1965).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750-1950*. London: Faber and Faber.
6. Fletcher, Banister (1961). A history of architecture on the comparative method. 7th ed. revised by R. A. Cordingley. London: The

Athlone Press.

7. Giedion, S. (1922). *Spätbarocker und Romanischer Klassizismus*. München: F. Bruckmann A.-G.
8. Gould, P. and White, R. (1974). *Mental map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9. Hall, E. T. (1966). *The hidden dimension*. Garden City, N. Y.: Doubleday & Co.
10. Heidegger, Martin (1971).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Poetry, language, thought*, pp. 145-161. Translated by A. Hofstadter. New York: Harper & Row.
11. Kim, Young Chul (1979). Placeness of space: In the case of the column. *Edinburgh Architecture Research*, Vol. 6, pp. 1-10.
12. Kobayashi, S. [小林信明] (1963). *Shinsen Kanwajiten* [*新選漢和辭典*]. Tokyo: Shogakkan [小學館].
13. Lewin, K. (1936).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Translated by F. Heider and G. M. Heider. New York and London: McGraw-Hill Book Co.
14. Mehrabian, A. and Russell, J. A. (1974).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5. Norberg-Schulz, C. (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
16. Norwich, J. J. (1984). *The World Atlas of Architecture*. New York and Avenel, N. J.: Crescent Books.
17. Ogden, R. M. (1938). *The psychology of ar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 Partridge, E. (1958). *Origins: A short etymological dictionary of modern English*.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 Van de Ven, C. (1980). *Space in architecture: The evolution of a new idea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modern movements*. Assen, the Netherlands: Van Gorcum & Co.
20. 김민수(1997). *우리말 어원사전*. 서울: 태학사.
21. 김영철(1977). 공간한정화의 과정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21(75), pp. 3-8.
22. 김영철(1995).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정착과 집중.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9), pp. 3-14.
23. 김정섭(1997).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쓰기 사전*. 서울: 한길사.